

충북 북부지역 무속의례의 전승과 변이

- 위령의례와 구병의례를 중심으로

안 상 경(충북대 강사)

1. 충북권역 무속의례의 분류와 성격¹⁾

무속의례를 흔히 굿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굿은 엄격하게 일반 선굿을 한정하는 용어다. 선굿은 말 그대로 서서 행하는 무속의례다. 악사의 반주와 어우러져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판이다. 그런데 독경은 양반 차림의 법사(法師)가 북과 징만을 두드리며 점잖게 앉아서 특정 무경(巫經)을 송독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비록 신의 공수에도 침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조상신이 내려도 우는 사람이 없고 울리는 무(巫)도 없다. 굿 전체가 그저 담담하고 미지근하다. 따라서 독경을 ‘앉은굿’ 또는 ‘좌경(坐經)’이라고도 한다. 일반굿이 청배(請陪) - 오신(娛神) - 송신(送神)의 단계로 진행되는 데 반해 독경은 오신의 과정이 없고 대신 축사(逐邪) 과정이 부각된다. 곧 잡귀나 잡신을 잘 먹이고 달래어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보다 위협하여 몰아내는 위엄이 돋보인다. 충청도 양반의 성향과 상통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굿과 독경이 이렇게 의례형태나 진행방법 등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충북의 무속의례는 그 근간으로써 독경을 지향하고 있다. 독경의 의례는 기원의 목적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독경을 하면서 삼재푸리를 하는가 하면, 지노귀와 더불어 안택을 하는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합동의례 형식으로 서서히 변모되고 있다. 게다가 여느 지역의 선굿과 혼효되어 이른바 ‘잡탕굿’이 유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의례를 고수하고 있지만, 대개는 수요자의 취향 내지 요구에 따라 제차(祭次)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신명굿은 계속 이어져 법사(法師)나 보살은 끊임없이 산출되지만 병굿이나 미친굿 등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충북에서 전승되고 있는 독경에는 안택, 병굿, 신명굿, 삼신굿, 삼재굿, 삼재푸리, 살푸리, 용왕굿, 지노귀, 오구굿, 냇굿 등이 있다.

1) 기복의례(祈福儀禮)

(1) 안택

안택굿은 가택신(家宅神)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제이다. 보통 4~5개의 작은 굿거리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큰 굿이며, 각 거리마다 일정한 역할을 지닌 신격(神格)이 등장한다. 대개 조왕(竈王), 제석(帝釋), 터주(土主), 삼신(三神), 조상(祖上) 등이다. 제일은 정월(正月)과 시월(十月)을 전후한 시기에 택일된다. 일종의 정기제(定期祭)인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재화(災禍)가 있을 때나 가옥을 신축하였을 때 임시적으로 행한다. 더욱이 그 형태가 많이 축소되어 농촌 시골이나 산간 벽지에서 가끔 연행될 뿐이다. 제차는 대개 ① 조왕굿, ② 토주굿,

1) 안상경, 「충청도굿」,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pp. 152~159 재인용.

③ 성주굿, ④ 제석굿, ⑤ 조상굿 등으로 진행된다.

(2) 고사

고사굿은 안택굿과 유사하나 정례성을 띤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강하다. 제일은 시월을 전후한 시기에 택일되며, 제물은 시루, 돼지머리, 삼색실과, 청주 등이다. 특히 시루는 헛곡식으로 여섯 시루를 마련한다. 조상(祖上), 터주(土主), 성주(城主), 조왕(寵王), 삼신(三神), 잡신(雜神)을 위함이다. 기원은 가족 구성원의 안녕, 오곡의 풍성, 자손의 번창 등인데, 오늘날은 사업의 번성이나 작물의 풍작을 위한 고사가 흔하다. 제차는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축원문(祝願文), ④ 고사덕담(告祀德談), ⑤ 내전푸리 등의 송독으로 진행된다.

(3) 삼신굿

삼신굿은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행하는 임시제(臨時祭)다. 제일은 출산 후 초이레, 두이레, 세이레 중 택일되며, 제물은 메, 청수, 미역국, 백설기 등이다. 기원은 산모와 유아의 건강, 산모의 풍족한 모유 등이다. 제차는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축원문(祝願文), ④ 삼신경(三神經) 등의 송독과 ⑤ 삼신받이 순으로 진행된다. 삼신받이는 삼신을 모셔오는 일종의 모의행위인데, 신대를 따라 밖에 나가 돌이나 나무를 가져오는 것으로써 삼신의 현현(顯現)을 상징한다. 이를 제주머니에 쌀 또는 미역과 함께 넣고 모신다.

(4) 용왕굿

용왕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정기제다. 특히 남한강이 관통하고 있는 충주 일원에서 흔하다. 제일은 정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원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다. 제물은 용왕시루, 청주, 삼색실과 등이며, 일부의 제물을 물에 던져 진설한다. 제차는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용왕축원문(龍王祝願文), ④ 용왕경(龍王經), ⑤ 내전푸리 등의 송독으로 진행된다.

(5) 삼재푸리

삼재푸리는 삼재가 드는 해에 행하는 임시제다. 제일은 정월 초에 집중되며, 제물은 소금, 팥, 콩, 청수, 나이전(해당 제주의 나이 수대로 동전을 그릇에 담아 올려놓는 형태) 등이다. 또한 해당 제주의 속옷을 흰 종이에 말아놓는다. 제차는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축원문(祝願文), ③ 삼재경(三災經) 등의 송독과 ④ 삼재풀이 행위로 진행된다. 삼재풀이 행위는 삼재를 풀어내는 과정으로서 주술적 행위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우선 환자의 머리에 박을 뒤집어씌운 후, 팥과 소금 등으로 내치며 이어 제주의 속옷을 불에 태운다.

(6) 살푸리

살푸리는 인간의 삶에서 닦칠 수 있는 여러 살(煞)을 풀기 위한 임시제다. 살상(煞床) 앞에 해당 제주를 앉히고, 그 나이수대로의 수수팥떡과 청수를 진설한다. 제차는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축원문(祝願文), ④ 팔신청래(八神請來), ⑤ 해살경(解煞經) 등의 송독과 ⑥ 살푸리 행위로 진행된다. 살푸리 행위는 살을 제거하기 위한 주술행위인데, 우선 해당 제주의 머리 위에 보자기를 씌우고 여기에 다시 키(箕)를 뒤집어씌운다. 이어 일체의 수수팥떡을 재(灰)와 고춧가루에 묻혀 화살 끝에 꼬이고 해당 제주의 머리 위를 향

해 쏘아댄다. 살이 모두 대문 밖으로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살은 다시 주어 반복한다.

2) 위령의례(慰靈儀禮)

(1) 닛곳

닛곳은 ‘닛건짐’으로 불리는 임시제다. 집안에 객사한 사람이 있어 혹 원혼이 될 것을 염려하여 행하는 해원적 성격의 의례이다. 제장은 사망한 바로 그 장소가 되는데, 여기에 깨끗한 짚을 깔고 혼령상(魂靈床)을 차린다. 혼령상에는 백설기, 청주, 정안수, 삼색과일 등을 진설한다. 제차는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축원문(祝願文), ④ 해원푸리 등의 송독과 ⑤ 초혼(招魂), ⑥ 닛건짐으로 진행된다. 닛건짐은 초혼기(招魂器)로 불리는 그릇에 망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가령 익사한 경우, 초혼기에 쌀을 담아 명주 수건으로 에워싼 후 물 속에 담가 두었다가 꺼낸다.

(2) 지노귀

지노귀는 ‘자리견음’으로 불리는 임시제로서 망자의 혼을 천도하기 위한 의례이다. 안방에 시왕명패(十王名牌)를 모시고 망령상(亡靈床)을 차린다. 망령상에는 망자의 영가(靈駕)를 세우며, 그 앞에 길배를 12척으로 깔아 놓은 후 12개의 그릇에 쌀을 담아 불뉘이를 한다. 여기에 사자(使者)의 신체(神體)를 상징하는 백지를 꽂는다. 경우에 따라서 망자의 옷이나 신발 등을 올려놓기도 한다. 제차는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축원문(祝願文), ④ 명당경(明堂經), ⑤ 해원경(解冤經)의 송독과 ⑥ 내전푸리로 진행된다.

(3) 오구굿

오구굿은 길일을 택하여 망자의 영혼을 다시 한 번 천도하는 위령제(慰靈祭)다. 제차는 안택굿 다섯 거리에 지노귀 한 석이 보태어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3) 구병의례(救病儀禮)

(1) 병굿

병굿은 신병(神病)을 치료하기 위한 임시제다. 대개 2~3일 굿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병굿은 여느 굿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성한 제물이 없다. 백설기, 백미 1두, 정화수 등 최소한의 제물이 진설될 뿐이다. 일반굿에서처럼 신을 잘 먹고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신에 대한 위협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1일은 안택굿으로서 ① 조왕굿, ② 터주굿, ③ 성조굿, ④ 제석굿, ⑤ 조상굿 등 다섯 거리가 기본이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우선 여러 가택신들께 고한다는, 또한 집안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받기 위한 혼란이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는 의미가 더욱 지배적이다. 2일부터 본격적으로 병굿이 행해지는데, ① 신장(神將)들을 불러들이는 청배거리, ② 신장들의 힘을 빌어 역신(疫神)을 구축하는 축사거리, ③ 신장들을 되돌려 보내는 송신거리로 진행된다. 특히 축사거리는 환자의 상태나 그때 그때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다.

(2) 푸닥거리

소규모의 병굿이 푸닥거리다. 대수대명(代數代命)이나 살푸리 등의 핵심 축사거리와 축원

만을 행한다. 무경의 송독보다는 주술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약간의 비손이 곁들여진다.

4) 강신의례(降神儀禮)

(1) 신명굿

신명굿은 흔히 ‘내림굿’ 또는 ‘신가래재비’로 불리는 사흘 이상의 대규모 굿이다.

첫째 날은 입무자(入巫者)의 신내림을 여러 가택신(家宅神)과 조상에게 미리 고한다는 의미로서 안택굿을 행한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신명굿이 이어지는데, 이 때의 의식은 허주(虛主)굿의 성격이 강하다. 허주굿은 입무자의 몸에 실려 있는 잡귀·잡신을 몰아내는 의식이다. 제장에 천존장(天尊章), 팔목신장위목(八目神將位目), 오방신장위목(五方神將位目)을 붙이고, 일자철망(一字鐵網), 팔진철망(八陣鐵網), 원앙철망(鴛鴦鐵網) 등을 사방에 둘러친다. 제물로서 천존상(天尊床)에는 쌀을 담은 모발에 신장대를 꽂아두고, 신도상(神道床)에는 백설기, 청주, 정안수를, 객신상(客神床)에는 메 한 그릇과 삼색과일을 진설한다. 의식은 다섯 거리로 진행된다. 제1석은 청신거리로서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축원문(祝願文), ④ 청신편(請神篇)을 송독한다. 제2석은 축사거리로서 ① 명당경(明堂經), ② 신장축원문(神將祝願文), ③ 옥추경(玉樞經)을 송독한다. 제3석은 축사거리의 연장으로서 ① 옥갑경(玉甲經), ② 천지팔양경(天地八陽經)을 송독한다. 제4석 역시 축사거리의 연장으로서 ① 계사(繫辭), ② 철망경(鐵網經)의 송독에 이은 ③ 대가림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잡신을 잡아 가두는 주술행위를 행한다. 제5석은 송신거리로서 ① 신장퇴문경(神將退門經)의 송독과 ② 내전푸리로 진행된다. 이때부터 입무자의 강신무(降神舞)가 어우러진다.

셋째 날의 의식은 입무자의 몸에 신을 받아들이는 신내림과 입무자를 위한 축원이 이어진다. 제물로서 천존상에 천존시루, 정안수, 청주, 삼색과일, 포 등 가능한 일체의 것들을 진설한다. 의식은 다섯 거리로 진행된다. 제1석은 청신거리로서 ①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 ② 부정경(不淨經), ③ 축원문(祝願文), ④ 청신편(請神篇)을 송독한다. 제2석부터 제4석까지는 입무자를 위한 축원거리다. 제5석은 입무자의 주신(主神)을 확인하는 단계다. 여러 신의 이름을 적은 신장위목(神將位目)을 바닥에 놓고 입무자로 하여금 대를 따라 선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단 선정을 하면 입무자는 그 명패를 간수하였다가 신당을 설치한 후 보존한다. 이어 신장퇴문경(神將退門經)을 송독함으로써 제장으로 청배했던 신장들이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이로써 신명굿의 모든 의식이 마무리된다.

2. 충북 북부지역 무속의례의 형태와 무경

1) 위령의례(慰靈儀禮)

대상 자료는 2003년 봄, 최옥분²⁾이 주관한 자리굿이다. 천도굿의 성격이 강하며, 현장에서

2) 최옥분(1939년 경북 경주 출생, 충북 제천시 영천동 거주)은 무력(巫歷) 40여 년의 강신무(降神巫)다. 법명은 빨간동자이며, 주신(主神)은 동자신이다. 1993년도 대전엑스포 문화행사에 참여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불교총연합회 제천시부 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는 흔히 ‘시향 갈라준다’로 불리어진다. 자리굿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한(恨)에 기인해 치러지는 의례인데, 분석 자료에서의 한(恨)은 뜻하지 않은 가장의 죽음으로 인한 좌절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족 구성원의 미련에 기인하였다. 결국 의례의 형식을 빌어 한을 치유하고자 한 것이다. 의례의 절차는 고정적이어서 ① 부정굿, ② 칠성굿, ③ 산신굿, ④ 서낭굿, ⑤ 성주굿, ⑥ 대감굿, ⑦ 조상굿, ⑧ 길담음으로 진행한다. 부정굿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거리에서 여러 가택신(家宅神)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조우의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개개 복락을 축원하고 또 망자의 천도를 기원한다. 각 개별거리가 서로 독립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기원을 위해 맞아들이는 해당신도 다양하다.

(1) 부정굿

부정굿은 달리 ‘부정풀이’로도 불리어진다. 본격적인 의례를 치르기 전에 제장 주위 일체의 부정을 소멸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의례로 볼 수 있다. 무(巫)는 오른손에 대신칼을, 왼손에 부정쟁반을 든다. 부정쟁반 위에는 정수 한 사발, 고춧가루 한 사발, 소금 한 사발 그리고 약간의 숯과 진설한 제물 일부를 떼어놓는다. 이후 제장을 서서히 선회하며 <부정풀이>를 송독한다.

(가) 遠方不淨 近方不淨 遠近間不淨神을 日吉辰良 소멸할 제, 東方宅神不淨神 南方宅神不淨神 西方宅神不淨神 北方宅神不淨神 中央宅神不淨神 良方宅神不淨神 坎方宅神不淨神 乾方宅神不淨神 …… 一切 不淨 消滅차로 千手經內에 太多羅尼를 發願이 오 神妙章句太多羅尼 云云.

<부정풀이>

(가)는 <부정풀이>의 서두와 결미 부분이다. 풍수 및 주역의 원리를 동원하여 각 방위에 흩어져 있는 부정이 소멸되기를 불교의 원력(願力)을 빌어 기원하고 있다. 경문을 송독한 후에는 부정쟁반에 떼어놓은 제물을 ‘말강물’에 넣고 사방을 향해 뿌린다. 이로써 제장 주위 일체의 부정을 물릴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대신칼을 문 밖으로 내던져 칼날이 앞쪽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일종의 가시적인 유감주술 행위으로써 제장의 정확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칠성굿

칠성굿은 인간의 명과 복을 관장하는, 칠성신(七星神)을 대상 신격으로 하는 의례다. 칠성복(흰색)에 장삼을 걸친 무복 차림으로써 칠성신의 현신(現身)으로 삼는다. 이외 양손에는 명과 복을 상징하는 칠성주머니가 들린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는 다만 칠성만신을 모시지 않는다. 인간의 명을 관장하는 도령애기씨, 천문지리풍수, 부인마마, 팔선녀 등을 청배하기도 하며, 쌀을 내려주는 요미성수를 청배하기도 한다. 칠성과 그 신격이 유사한 모든 신들을 제장으로 불러들여 더욱 많은 명과 복을 받기 위한 염원으로 볼 수 있다. 의례는 무(巫)가 용궁단지에 올라 <칠성축사>를 송독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더러 약간의 몸짓을 보이는 용궁단지춤이 이 과정에서 재연된다.

(나) 七星祝曰 北斗第一 子孫萬德 北斗第二 障難遠離 北斗第三 業障消除 北斗第四 所求皆得 北斗第五 百障殄滅 …… 降臨助我 臨我將時 如天相應하야 壽福人間하고 諸惡을 逐災하야 正常無量을 하소사.

<七星祝辭>

(나)는 <칠성축원>의 서두와 결미 부분이다. 여느 무가에서 막연하게 드러나는 관습적 축원과 달리 사설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즉 남녀노소 제각기 닥칠 수 있는, 그리고 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액운을 고스란히 제시하고, 이것이 여러 칠성의 가호에 의해 극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느 지역의 경우에는 성조신(成造神)를 가택신의 최고 상위 신격으로 삼고 있는데, 충북 북부지역은 칠성신을 최고 우위의 신격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복락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에 기탁해 거친 산악지대에서의 거친 삶을 또 다른 방편으로 보상받고자 한 지역성의 표출로 볼 수 있다.

(3) 산신굿

산신굿은 전통마을의 안정과 번영을 관장하는, 산신(山神)을 대상 신격으로 하는 의례다. 산악 주위의 분지에 형성된 지역에서는 특히 산신을 가택신과 동일한 신격으로 섬기고 있다. 마을의 주산(主山)에 거처하는 최고의 산신을 각 가정에 좌정시킴으로써 더한 복락을 기할 수 있다는 무속적 관념의 발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거리에서는 무(巫)의 고향 본향 산신이 더불어 청배된다. 이로써 무(巫)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게 맑은 정기가 내려진다고 여긴다. 홍철릭의 산신복(빨강) 차림으로써 산신의 현신(現身)으로 삼는다. 의례는 <산신축원>의 송독에 이은 신력(神力) 과시 및 오방신장기점(五方神將旗占)으로 진행된다.

(다) 大梵天王堂山神 天釋天王堂山神 三十三天堂山神 五嶽地神堂山神 后土地神堂山神 東方青帝堂山神 南方赤帝堂山神 西方白帝堂山神 北方黑帝堂山神 …… 靑龍白虎堂山地神 朱雀玄武堂山地神 乾命大主 ○씨 ○○生身과 坤命地主 ○씨 ○○生身 兩主保體 發願하오니 이 明堂 이 터전에 降臨하시어 年年益壽 點指하소서.

<山神祝願>

(다)는 <산신축원>의 서두와 결미 부분이다. 신명을 거론하면 해당신이 강림한다는 무속적 관념에 의해 산신의 이름만이 호명되고 있다. 각처의 명산에 거처하는 산신들이 어서 강림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써 청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통 사설이다. 기원의 대상이 산신임을 아뢰며,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축원이 결부되는 무경의 사설 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경문을 송독한 후에는 통땀지를 가지고 사실을 세워 산신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또한 오방신장기점을 쳐서 제비(祭費) 이외의 복채를 받기도 한다.

(4) 서낭굿

서낭굿은 달리 ‘당산굿’으로도 불리어진다. 이 거리는 개별거리 성격의 독립된 형태라기보다는 산신굿에 결부되어 있는 부속적 형태로 존재한다. 즉 산신굿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러 신명(神明)이 극도에 달했을 경우에 한해, 창부, 호구, 서낭 등을 함께 청배하여 여러 가지 노래와 재담으로 한껏 흥을 돋운 후 공수를 반복한다.

(5) 성주굿

성주굿은 가택신(家宅神) 중 가장 우위의 신격인 성주신(成造神)를 대상 신격으로 하는 의례다. 따라서 여느 일반거리에 비해 의례가 사뭇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격

이다. 그러나 충북 북부지역에서는 이 거리가 일종의 놀이 형식으로 변이되어 진행된다. 무(巫)는 붉은 도포를 입고 <성조경>을 푸너리춤을 추며 송독이 아닌, 서사적인 창으로 노래하거나 이야기조로 구연하며 여러 가지 마임과 춤을 뒤섞어 제장을 생동감 넘치는 놀이판으로 승화시킨다.

(라) 성주님의 부친 天宮大王이 나이 서른 일곱이요, 성주님의 모친 玉眞夫人이 나이 서른 아홉이라. 兩主 나이가 年當 사십에 近하도록 膝下에 一点血肉이 없어 매일 매일을 夫婦가 한탄할 제, 한 날은 卜師를 청하여 問卜을 하니, 그 卜師가 点之하여 曰하기를 …… 富貴榮華 하옵기도 성주님의 恩德이니 今日 精誠 이 發願에 此明堂의 성주님은 歡響感動 하옵시와 安過太平 福을 주고 남자에겐 喪妻之厄 여자에겐 喪夫之厄 老父老母 病患之厄 자손에겐 媽媽之厄 일가문중 小福之厄 口舌之厄 破産之厄 憂患疾苦 呻吟之厄 一切 消滅하옵소서. 急急如律令.

<成造經>

(라)는 <성조경>의 서두와 결미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의 형태가 무가와 무경이 혼효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서두는 성주의 내력을 푸는 본풀이 형식의 서사적 무가인데 반해, 결미는 한문어투의 일반적 경문에 대상 신격의 이름만을 바꾸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악기의 장단에 맞춰 극화된 몸짓과 대사를 무(巫)가 새로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전통인 충청도 무속의 유훈(遺訓)을 끝내 저버리지 못하고 결미에는 고유의 경문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시기의 진행과 상관없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무가와 무경이 혼효되어 전승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무(巫)는 성주대를 들고 집안의 곳곳을 살피고, 새 성주가 접지할 만한 곳에 성주의 신체(神體)를 고이 봉안한다.

(6) 대감굿

대감굿은 달리 ‘신장장군놀림’으로도 불리어진다.³⁾ 무속적 신관(神觀)에서, 대감은 탐심과 욕심이 많은 신격이다. 따라서 대감굿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제물이 필수적이다. 대개 대감상(大監床)을 따로 마련하는데, 제물로서 쌀 1말, 백미 1두, 청주, 돼지머리, 떡 등이 진설된다. 이 거리에서는 징과 북 이외 팽과리와 바라가 곁들여지며, 무경의 송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무(巫)의 축원과 공수로 일관한다. 무엇보다 다채로운 의상과 악기를 통해 오신(娛神)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마) 海東은 大韓國이오, 天地神明 日月星辰 玉皇上帝 구부시고(굽어보시고), 北斗大星 七元星君 구부시고, 八道名山 五嶽山神 구부시고, 水府四海 龍王大神 구부실 적에 여기는 忠淸道 ○○○가 아니더냐? 여기 八道明處의 대감님이 구부시며 둘러보니 반가운 精誠 아닌 게 없구나! 자다가도 깨겠구나! 졸다가도 깨겠구나! 오늘날에 이 精誠이 누구의 뜻이드냐? 富貴功名을 누리려고 坤命大柱 坤命大柱 兩柱夫妻가 이 정성을 發源했더냐! 今日 이 精誠 發源으로 하는 일마다 도와 주고 살피줄 것이니 ……

<大監祝願>

3) 대감굿은 현세의 복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아주 활발한 거리로서 일반 선굿(12거리)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알려진 거리다. 한국사전연구사, 『한국민속대사전』, 열두거리굿 항, 1998, p. 1035.

(마)는 사설이 고정적이지 않은 일종의 공수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 내지는 무(巫)의 숙련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확장될 수 있는 가변성이 크다. 또한 사설이 여느 거리에서 송독되는 한문어투가 아니라, 현세적 복락을 추구하는 이야기조의 구어체 사설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설을, 무(巫)는 끊임없이 울리는 악기의 장단에 맞춰 다양한 대감들의 신격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착용하고, 타령 내지는 노래를 구연함으로써 제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한편 가족 구성원들도 진실한 제단에 복전(福錢)을 바치고 배례를 하기도 하며, 흥이 나면 춤을 추기도 한다. 의례의 공간에 또 다른 혼돈의 공간을 창출하고, 그 곳에서 신과 인간이 조우하며 신의(神意)를 획득하는 액스터시를 생생하게 연출한다.

(7) 조상굿

조상굿은 5대 조상을 아울러 대상 신격으로 하는 의례다. 조상신을 청배하여 위로하고 또 이 과정에서 후손들의 복락을 기원한다. 조상신의 옷을 정성껏 마련하고 조상신이 강립하면 그들의 한(恨)을 <조상경>의 송독으로 풀어낸다. 여느 거리에 비해 제장이 때로는 절규의 장이, 때로는 회한의 장이 되어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여느 가택신과는 달리 조상신을 자손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신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바) 公子 孟子도 德行 없어 죽었으며 元 나라에 扁鵲이도 약을 몰라 죽었으며 재석강에 李太白은 술이 없어 죽었으며 大國富者 石崇이도 돈이 없어 죽었으며 唐明皇에 楊貴妃는 인물 없어 죽었더라 ……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을 돌아갈 제 怨을 말고 恨을 말고 極樂世界 잘 가서서 人道還生 다시 하고 長生不死 하옵소서.

<祖上經>

(바)는 <祖上經>의 서두와 결미 부분이다. 조상신의 신격을 공자, 맹자, 편작, 이태백 등과 같은 성현과 대비하여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생의 허망함까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조상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제장으로 청배해 들이고 조상에게는 극락천도를, 자손에게는 부귀공명을 축원한다.

(8) 길땀음

길땀음은 자리굿의 핵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제껏 이루어진 개별거리에서 칠성신, 산신, 서낭신, 성조신, 대감신, 조상신 등을 차례로 불러들여 가족 구성원의 복락을 추구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선신(善神)의 가호에 의해 망자가 천도되기를 일관되게 기원하였던 것이다. 이 거리에서는 수동적 참여자로 머물렀던 가족 구성원들이 시종 무(巫)의 뒤를 따르며 능동적 참여자로 존재한다. 망자상 앞에 두 명의 조무(助巫)가 두 갈래로 찢긴 명주필 양 끝을 잡고 서 있으며, 명주필 위에는 망자의 속옷을 담은 냇상자와 복전(福錢)이 놓여 있다. 무(巫)는 명주필을 서서히 가르며 <해원경>을 송독한다.

(아) 第一前에는 秦廣大王 나무아미타불~ 第二前에는 初江大王 나무아미타불~ 第三前에는 宋帝大王 나무아미타불~ 第四前에는 悟官大王 나무아미타불~ 第五前에는 閻羅大王 나무아미타불~ 第六前에는 變成大王 나무아미타불~ 第七前에는 太山大王 나무아미타불~ 第八前에는 平等大王 나무아미타불~ 第九前에는 都市大王 나무아미타불~ 第十前에는 轉輪大王 나무아미타불~ 어디에 매인 조상이라도 子孫宮에 오셨거든 子孫香花 받으시고 꽃밭으로 오르소서. 소소한 정성이로되 태

산같이 받으시고 忿心 怒心 풀으시고 欣然感應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解冤經>

(아)는 <해원경>의 전문이다. 망자의 죄과를 다스리는 제일전의 진광대왕(秦廣大王)⁴⁾으로부터 제십전의 전륜대왕(轉輪大王)⁵⁾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좌정지와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주위를 환기시키는 교술적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연신 송독되는 “나무아미타불”은 불교의 원력(願力)으로 망자가 천도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주사(呪辭)로 볼 수 있다. 망자의 천도를 상징하는 모의행위를 통해 이제 희망 가득한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지옥으로 상징되는 보다 험난한 세계로의 진입을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가 송독된다. 자리곳의 궁극적 목적이 다시 한 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2) 구병의례(救病儀禮)

대상 자료는 1998년 가을, 염의춘⁶⁾이 주관한 병굿이다. 임시제였으며, 3일굿으로서 병굿의 전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분석 자료에서의 병인(病因)은 죽은 전처의 한(恨)이 서린 역신(疫神)의 침해였으며, 의례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의례의 구조가 청배 - 축사 - 송신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치병의 목적을 실현하는 병굿의 면모를 잘 함축하고 있다. 병굿에서 청배되는 대상신은 신장(神將)이며, 이들이 곧 축사(逐邪)의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의 무경에 자주 등장하는 신장은 옥황(玉皇), 칠성(七星), 제석(帝釋), 천존(天尊), 진군(真君), 용왕(龍王), 원수(元帥) 등이다. 주로 도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인물들이다.

(1) 제차 1 일

제차 1 일은 안택굿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기원의 대상이나 의미는 일반적인 안택굿과 상이하다. 곧 안택굿의 의미와 목적이 가정의 축원에 있다면, 병굿과 결부한 안택굿은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우선 가택신(家宅神)에게 고한다는, 또한 집안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받기 위한 혼란이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는 의미가 더욱 지배적이다.

(2) 제차 2 일

① 제 1 석

염의춘 병굿은 둘째 날부터 본격화된다. 우선 북 앞에 앉아 <태을보신경>을 송독한다. 법사 자신을 위해 스스로 최면에 돌입하려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 太上曰 皇天生我 黃地載我 日月助我 星辰映我 諸神舉我 司命與我 太乙臨我 玉

4) 망자의 영혼은 7일만에 진관대왕의 거소에 이르게 되는데, 진관대왕은 사경대(邪鏡臺)에 비치지는 현세에서의 죄과에 따라 이외의 대왕에게 망자를 인도한다.

5) 망자의 영혼은 10년만에 전륜대왕의 거소에 이르게 되는데, 전륜대왕은 현세에서의 죄과에 따라 망자를 짐승 내지 인간으로 다시 환생시킨다.

6) 염의춘(1931년 충북 단양 출생,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거주)은 무력(巫歷) 40여 년의 학습무(學習巫)다. 법명은 법운(法雲)이며, 주신(主神)은 관우장군이다. 현재 한국불교총연합회 제천시지부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神導我 三官保我 五帝佑我 北辰相我 南斗佑我 金童侍我 玉女陪我 ……

<太乙保神經>

(가)는 <태을보신경>의 서두다. 우선 <태을보신경>을 송독하는 것은 법사로서의 신통력을 극도로 발휘하기 위함이다. 사실 전반에서, 법사 자신은 황천(皇天)과 황지(皇地)로부터 생겨났고, 일월성신(日月星神)을 비롯한 모든 신들의 보호를 받는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부리게 될 신장과 축사의 대상이 되는 역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후 연속하여 <청신편>과 <사십팔신장청>을 송독한다. <청신편>은 가택의 여러 조상신들을 청배하기 위해 송독되며, <사십팔신장청>은 역신을 구축할 여러 신장들을 청배하기 위해 송독된다.

(나) 萬法教主 東華教主 大法天師 神功妙濟許眞君 弘濟丘天師 許靜張天師 旌陽許眞君 海環白 眞人 …… 忠翊張元帥 洞神劉元帥 豁落王元帥 神雷石元帥 監生高元帥

<四十八神將請>

(나)는 <사십팔신장청>의 일부다. 일관되게 여러 신장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 전문에서 48명의 신장들이 호명되는데, 그들을 모두 제장으로 청배하려는 의도다. 이들 신장들은 수호신의 성격을 지니며 역신을 축사시킬 청배의 대상신이다. 이 거리는 조상신과 신장들의 청배 단계며, 이로써 본격적인 축사의 준비 단계가 마무리된다. 요컨대 염의춘 병긋의 제1석은 축사를 담당하게 될 신장을 맞아들이는 청배의 과정이다.

② 제2석

제2석은 이미 청배된 여러 신장들을 신장대로 받아들이는 ‘신장내림’과 청배된 신장들로 하여금 역신 주위를 둘러싸게 만드는 이른바 ‘진을 친다’는 진법(陣法)을 수행하는 거리다. 신장대잡이는 특별히 설정된 인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신이 잘 통하는 사람일수록 진행이 순조롭다. 신장대는 50센티미터 가량 되는 곧은 대나무로서 주위를 창호지로 둘러쌌으며 맨 위에는 수술을 만들어 놓았다. 일단 신장대에 신이 내리면 신장대잡이는 자신도 모르게 집안 구석이나 환자 주위를, 때로는 마을 주위를 맴돌기도 하는데, 이 때 법사는 <팔문대진경>을 송독하여 신장들로 하여금 역신을 포위하고, 이어 진(陳)을 치도록 명령한다.

(다) 五部에 侍衛하라 羅列行伍하고 至敎將箭하여 放砲鳴나어든 各兵이 陣하고 五行旗幟를 具起하고 一字로 左右에 行列하여 …… 天土大王은 八億萬千 百名官과 各諸將軍兵을 令하여 五行陣을 定하고 比和雁行을 總執點定하여라 漢用元帥는 三億萬 千百名官과 各諸將兵을 令하여 戰場陣을 定하고 各有傷殺을 總執處置하여라

<八門大陳經>

(다)는 <팔문대진경>의 일부로서 전투에 있어서의 병법(兵法)을 연상시킨다. 이 경문을 송독함으로써 비로소 역신을 구축하는 신장들의 역할이 본격화된다. 제2석은 신장들로 하여금 역신 주위에 진을 치게 만드는 단계며, 이후로 이어지는 제3석의 바탕이 되는 거리다.

③ 제3석

병긋의 궁극적 목적은 역신의 구축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경문들이 이 거리에서 송독된다. 역신에 대한 위협은 <옥추경>과 <옥갑경>에서, 잡아 가두는 것은 <철망경>과 <해살경>에서, 섬멸하는 것은 <백화경>과 <대축사>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격이다. 더욱이 수 차례에 걸친 반복 송독으로 그 효과는 배가된다.

(라) 中央大陣軍雷神將 千派總軍後繼神將 千軍萬軍總兵神將 各確軍兵號令神將 鐵網神將 一時에 下降感應하소서 …… 此網知耶不知耶 欲生者는 避去하고 欲死者는 入鐵網 自滅이라 天天大大 地地平平 人人生生 鬼鬼滅滅 諸惡鬼消滅 急急如律令
<鐵網經>

(라)는 <철망경> 일부다. 우선 여러 신장의 이름을 호명하여 그들을 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 명칭에서부터 제각기 역할이 드러나고 있다. 역신과 대적할 제신(諸神)들을 지휘하는 역할이다. 이들이 곧 역신을 철망(鐵網) 속에 가두게 되는데, 법사는 (라)의 송독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역신잡이 행위를 수행한다. 법사는 환자를 문턱에 눕히고 좁쌀, 수수 등의 오곡잡곡을 뿌리며 복숭아 가지로 환자의 몸을 마구 내리친다. 어느 정도 진행하면 환자가 기절을 하는데, 이 때 신장칼을 환자의 등에 X자 형식으로 두른 후 허리 밑에서부터 돌려 뺀다. 그 칼을 던져 칼날이 앞쪽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면, 일단은 역신이 환자의 몸에서 빠져 나왔다고 본다. 동쪽으로 뺀 복숭아 가지의 주술력과 옥황상제로부터 수여 받은 칠성검(七星劍)으로서의 자격인 신장칼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주술이다. 이어 법사는 <백화경>과 <박살경>을 반복하여 송독한다.

(마) 夫人者는 萬物之最靈이라 人之生도 在天이요 人之死도 亦 在天이든 有命이면 生하고 非命이라도 鬼神之中에 不死니라 …… 轉誦此經하면 너의 妖鬼邪鬼는 頭于破作 七片하여 數千萬年이라도 永不出世하리라 ……
<白化經>

(마)를 송독하는 과정에서 법사의 손에 창호지로 감은 팔 세 알이 놓여지는데, 송독이 진행됨에 따라 손에 권 팔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관측된다. 역신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사귀통(邪鬼桶)에 담아 찰흙으로 그 입구를 막은 후 마을 어귀에 있는 서낭당 밑에 석자 깊이의 땅을 파고 묻는다. 이로써 환자의 몸에 있던 역신이 완전히 몰려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오방기(五方旗)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이 때 빨간색의 기를 꼽으면 역신 및 잡귀·잡신이 모두 몰려갔다고 여기지만 만약 다른 색의 기를 선택하면 이 거리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듭 진행한다.

④ 제 4 석

제 4 석은 대수대명(代壽代命)의 과정이다. 대수대명은 재액을 전이시키는 행위로서 환자를 구상화(具象化)한 대신(代身)을 내세워 역신을 추방하는 속죄양 모티브의 일종이다.⁷⁾ 염의춘 병곳에서 대신(代身)은 살아 있는 닭이다. 우선 닭의 입에 환자의 나이 수대로 쌀알을 집어 넣고 명주실로 동여맨다. 이어 환자의 속옷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붉은 색으로 기록하고 그것으로 닭을 예운다. 이렇게 준비된 닭의 목을 친 후 사람이 죽었을 때 염을 하는 방식과 같이 12매의 염장을 맨다. 이로써 환자의 재액이 닭에게로 전이되었다고 믿는다.

7) J. G. Frazer, 김상일 역, 『황금의 가지 下』, 을유문화사, 1983, p. 686.

여기서의 논의 대상지역인 ‘충북 북부지역’은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충북 북부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무(巫)의 활동 범위’를 의미한다. 굳이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획일하여 말하자면 충북의 충주, 제천, 단양 및 강원도의 원주, 횡성, 영월 등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무집단의 결속 및 활동 양상에 따라 무(巫)의 활동 범위는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巫)의 사제 관계에 따라서도 지역적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이라는 공간의 개념만으로 무속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제보자의 선정이 논의의 제일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정 집단 중에서 대표성을 띤 특정인의 자료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전승의 중심 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각편들의 변이 양상을 종합하여 지역 의례의 원형을 재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역성을 함축한 무속문화의 전승이 지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이되었는지 등의 문제를 연행현장적 맥락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충북 북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무력(巫歷) 40년 이상의 법사와 보살을 선정하여 위령의례 및 구병의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를 병행하였다.

위령의례는 해원적(解冤的) 성격의 의례이기 때문에 어느 의례에 비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요가 높다. 따라서 무(巫)는 위령의례를 통해 수요자의 감정을 정화시키면서 자신의 신통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무(巫)의 지역적 존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시기 독경에 의한 위령의례는 흔히 ‘뉘건짐’으로 불리며, 망자의 천도를 위해 일관되고 단일한 방향으로 의례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엄격한 지도와 혹독한 수련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무(巫)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진행 양상은 유사했다. 그러나 오늘날 충북 북부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천도를 위한 위령의례에 산 자의 복락을 위한 기복의례가 혼효되어 전승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령의례와 혼효된 기복의례 자체가 더한 변이를 거치고 있다. 우선 조왕굿, 토주굿, 성주굿, 제석굿, 조상굿 등 전통적인 다섯 거리에 산신굿, 서낭굿, 대감굿 등이 뒤섞였다. 물론 조왕, 토주, 제석, 성주, 칠성, 삼신 등 청배하는 신격에도 변화가 있지만, 해당 신격 모두가 가택신(家宅神)이라는 점에서 의례의 방식이나 기원의 성격은 동일하다. 따라서 변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각편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의 기원에 따라 청배하는 신격을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자손을 기원할 경우에는 삼신을, 축수(祝壽)를 기원할 경우에는 제석 및 칠성을 의례의 중심에 설정한다. 즉 무(巫)는 이미 습득한 의례의 진행 방식을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엮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의례의 방식이 아무리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산신이나 서낭 또는 대감이 청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지역적 변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상정할 수 있다. 충북의 북부지역은 산악 주위의 분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부터 산신과 서낭을 연결하여 숭배하는 대동적(大同的) 형태의 북방형 제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⁸⁾ 마을의 안녕을 산신과 서낭에게 동시에 기원하는 마을공동의 신앙형태인데,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를 신령의 보호 아래 축복을 받는 신성한 지역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마을 최고

8) 이창식, 『마을신앙 오티별신제』, 집문당, 2001, p. 67.

의 주신(主神)을 충북 북부지역에서는 가택신과 동일시하며 각 가정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산과 함께 산을 좇으며 살아야했던 산사람들의 문화적 환경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독경의 신격으로 볼 수 없는 대감이 등장하고 있다.⁹⁾ 독경의 전통적인 진행과 상관없이 일반 선거리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잘 알려진 대감거리가 부동의 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경향으로, 수요자의 인식 변화에 따른 무(巫)의 적극적인 대응이 빚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과학 및 종교가 발달함에 따라 수요자들은 곳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 내지는 한(恨)을 풀어내어 치유하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다채로운 의상과 끊임없이 울리는 공명을 통해 그리고 축원 및 공수를 통해 위안을 부여하는 대감거리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수요자의 입장 변화에 상응하여 이루어진 변이인데, 비단 충북 북부지역에 국한한 경향이 아니라 충청도 전역에 걸쳐 보편화된 변이다.

한편 구병의례는 신장(神將)의 위력을 활용하여 역신(疫神)을 몰아내는 주술적 의례로서,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정신질환에 한해 3일 이상의 대규모 형태로써 진행된다. 특히 법사의 모의행위 및 해당 경문의 송독에 의해 확보되는 주술력을 의례의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느 의례에 비해 해당거리의 구성이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신장을 자유자재로 부려야 하기 때문에 숙무(熟巫)가 아니면 구병의례를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형식이 이전 시기에서나 지금에서나 거의 다를 바 없다. 다만 숙무의 성향에 따라 조무(助巫)의 역할이 약간씩 차이를 보일 뿐이다. 충북 북부지역의 경우에, 지역적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러한 전승 환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충북 북부지역의 무속의례는 지역의 문화·지리적 특징을 함축하고 있는 지역적 곳거리의 면모를 지니면서 몇몇 특정 전문인에 의해 단독으로 진행되는 독자적인 곳거리로 존재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단양을 경계로 하여 경상도 지역의 무속의례와 변별되며, 충주를 경계로 하여 호서지역의 무속의례와 변별되며, 영월을 경계로 강원도 지역의 무속의례와 변별된다. 지역적이며 독자적인 곳거리이기 때문에 다분히 지역적 전승에 의존하게 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충북 북부지역 무속의례의 전승과 변이’

The Handing down and Variation of the Shamanic ceremony in the northern area of ChungBuk.

9) 조부원(1950년 충남 태안 출생, 충남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거주, 巫歷 51년의 世襲巫, 法名은 性眞이며, 主神은 山神, 현재 민속문화보존회 태안 지부장을 역임) 제보. “원래 우리 충청도곳은 아주 틀이 박혀 있는 게 특징이지요. 지금은 안택을 해도 대감을 위하는 거리가 많은데, 그건 다른 데서 만신들이 선거리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원래 충청도곳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이니까,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걸 꼭 해달라고 하니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들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합니다.”